



여주대학교

1993년 12월 1일 창간

The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News

여주대신문

교훈 사랑 봉사 실천

※ 교훈은 설립자 정동성 박사의 친필입니다.

제130호 |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벚꽃과 함께한 모든 여정들

‘여주대학교 벚꽃이 좋다 -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대학이 지난 10일부터 12일 교내 곳곳에서 ‘여주대학교 벚꽃이 좋다 - 우리 함께 걸어요’ 축제를 개최했다. 우리 대학 후문길은 매년 흐드러진 벚꽃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많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해당 시기 꽃길을 걸으며 봄을 즐겼다. 이에 학생지원처는 올해 행사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후문 차량을 통제하는 등 벚꽃 축제를 지원했다.

행사 기간 후문과 서바이벌 앞 광장에서는 총학생회와 대의원회가 주최하는 팔콘 나눔, 달고나 만들기, 떡메치기 체험행사와 실용음악과 밴드 공연이 진행되어 학생과 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베트남 유학생 200여명이 떡메치기 체험에 참여하여 한국의 문화를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지원처는 해당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 콘테스트도 진행했

다. 1~3명 이상이 팀을 이뤄 교내에 핀 꽃을 중심으로 찍은 사진을 제출하여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선정, 지난 27일 시상식을 가졌다. 최우수상은 송은지(간호학과), 정동엽(항공정비과) 학우가, 우수상은 강유리(패션산업과), 김지인(국방장비과), 남유미(안경광학과), 장려상으로는 장지범(자동차과), 김승희(패션산업과), 황민호(간호학과), 박연아(보건의료행정과), 김두현(특수전과) 학우가 선정되었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대학의 봄을 가깝게 느끼며 학교 곳곳에 숨은 아름다운 장소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민들 또한 아름답기로 유명한 벚꽃 길을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재희, 이재은 기자

e-MU 특수자동차공학과 운영대학으로 선정

우리 대학이 e-MU(e-Military University) 특수자동차공학과 운영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어 지난 12일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MU 군 전문학사(전공심화) 학위과정은 국방부가 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 하에 진행하는 정부 역점사업이다. 직업 군인들에게 공학교육과 학사학위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공 외 전공심화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우리 대학은 2018년 3월부터 진행(입학정원 30명)할 예정이다.

박성천 자동차과 학과장은 “e-MU 특수자동차공학과는 오는 10월까지 개설 준비를 거쳐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며 “대학 3, 4학년 과정으로 학기 중엔 군부대에서 원격(온라인) 강의를 통한 이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방학 기간엔 오프라인 실습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준호 총장 또한 “개교 이래 군부대와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군사학부 및 해병대 부사관 학군단을 창설하여 군 간부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e-MU 선정으로 향후 전국 최고의 군 특성화 대학으로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광 고

여주대신문에서는 학우들의 원고 투고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한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 및 투고는 간 사 | 2007704@yit.ac.kr

편집장 | ysg02098@naver.com 또는

여암학술정보관 4층 학보사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안내

1면 주요기사

- 벚꽃축제 진행해
- e-MU 특수자동차공학과 운영대학 선정

2면 교내

-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진행
- 약손명가, 준오헤어 브랜드학과 개설
- 직무역량 강화캠프

3면 사람

- 정찬주, 김웅성 학우 인터뷰

4면 기획

- 응답하라, 통학버스

5면 기획

- 벚꽃축제 이모저모

6면 시사

- 19대 대통령 선거

7면 광장

- 4차 산업혁명의 교육혁신을 위한 태도
- 스마트폰시대에 책을 권하다
- ‘더불어’ 살아가길

8면 문화

- 원주 뮤지엄 산
-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 2017 프로야구 직관

사 령

2017년 5월 15일부로
이하 9명을 수습기자에
임명함

- 김아영(사회복지과)
- 김지혜(작업치료과)
- 박경옥(호텔관광과)
- 박하은(사회복지과)
- 이은희(간호학과)
- 전혜연(도시공간디자인과)
- 정민영(작업치료과)
- 정은채(사회복지과)
- 최지원(간호학과)

취업을 선도하다!

육군정보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이 연일 취업 지원 및 전문성 교육 강화를 위한 산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과 4월 26일 각각 육군정보학교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와 학·군 및 산·학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각 협약식에는 윤준호 총장,

김진수 정보학교장(현역 준장), 김현생 지사장 등 기관 인사들이 참석, 상생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취창업지원처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군사정보에 관한 학술 및 기술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부족한 국가기술자격(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실기 시험장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수험권을 보장하고, 직업능력개발, 일학습병행제와 관련된 사업 유치 및 협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준호 총장은 “앞으로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한 상호 협력으로 양 기관이 발전하길 바란다”며 “전문 교육의 질적 향상이 청년 실업 감소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생각, 창조, 도전 페스티벌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해



창업교육센터는 지난 10일 창업동아리 발대식을 갖고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생각, 창조, 도전 페스티벌 -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이해와 도전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교내 창업동아리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호응을 얻

었다.

발대식에는 호텔외식조리과 외 11개과가 참여한 총 13개의 동아리가 선발되어 진행되었다. 캠프 기간에는 해당 동아리 회원과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성공 창업 동기부여, 리더십에 관한 특강이 실시되었다. 특히 특허기반 창업경진대회가 개최되어 지난

9일까지 각 동아리들의 창업 사업계획서 멘토링이 진행되어 주목을 끌었다.

창업교육센터 관계자는 “캠프를 통해 창업 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해 성공 창업의 자신감을 높여 주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은 기자

싱가포르 밀레니엄 호텔 인사부사장 방문

지난 4월 18일 그레이스 나(Grace Nha) 싱가포르 밀레니엄 호텔 인사담당 부사장이 우리 대학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교류센터가 운영 중인 K-MOVE 사업과 관련해 재학생들에게 해외 취업과 호텔을 홍보하

기 위함이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해당 호텔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K-MOVE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교류센터는 “지난 달 모집한 K-MOVE 해외취업 연수생

들은 오는 6월 26일부터 5개월 교내와 필리핀에서 교육 이수 후, 싱가포르 호텔 등지에 취업할 예정”이라며 “그레이스 부사장 방문으로 양 기관의 우호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호 총장 일일 명예시장 위촉

우리 대학 윤준호 총장이 지난 3월 24일 여주시 일일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었다. 이에 윤 총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 시 발전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 여주시는 2015년부터 매주 월요일 일일 명예시장 위촉하여, 현재까지 시민, 교사, 기관장 등 100여명이 시장직을 수행했다.

약손명가, 준오헤어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 뷰티미용과가 지난달 3일과 18일 우수 뷰티브랜드인 약손명가, 준오헤어와 실무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윤준호 총장과 이병철 약손명가 회장, 강운선 준오헤어 대표는 브랜드학과 개설을 통해 현장실습 기회 제공 및 양자 간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한 상호 필요한 정보와 인적, 물적 자원 등의 교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대학은 약손명가와 준오헤어 소속 전문가 및 연구진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초빙하여 전문 미용인 양성과 취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취창업지원처 관계자는 “골기 테라피 우수 브랜드인 약손명가, 우수 헤어브랜드인 준오헤어와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뮤지컬 동아리 ‘무빙인’ 농림식품축산부 사업 선정

뮤지컬 동아리 ‘무빙인’이 농림식품축산부가 주관하는 <2017 바른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무빙인은 청년층의 올바른 식습관 개선 정착이라는 주제를 뮤지컬로 풀어 재미와 교훈 모두 만족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무빙인을 지도한 김순향, 박진태 교수는 “동아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뮤지컬을 통해 공익과 봉사를 실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경쟁력과 자긍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직무역량 강화캠프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교내 곳곳에서 취업역량 강화캠프가 실시되었다. 취업지원센터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 전수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 자연과학계열 각 40명씩 총 16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강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면접 팁, 이미지메이킹 방법,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모의면접 실시 등에 대해 강사가 1:1로 코치해줘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희 기자

인터뷰

‘함께’를 모색하는 이를 만나다

정찬주 부회장, 김용강 의장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신록이 우거졌다. 싱그럽다는 말이 참 어울리는 우리의 대학생활을 위해 ‘함께’하는 길을 생각하는 이들을 만났다. 25대 총학생회 정찬주(항공정비과/이하 ‘정’) 부회장과 김용강(자동차과/이하 ‘김’) 대의원회 의장이다.

대의원회와 총학생회를 하게 된 동기는?

축제, 체육대회 같은 학교 행사를 할 때나 주변 친구들의 불만 같은 걸 들을 때 모두가 즐거운 대학생활을 내 손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표, 각 학과 학생들의 대표로서 학생들의 건의사항과 복지를 위해 뛰고 싶었다. 내가 즐겁게 학교생활과 학우들의 건의를 위해 일한다면 내 주변, 더 나아가 많은 학생들도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경험들이 미래의 나에게 굉장한 거름으로 자리할 것 같기도 하다.

3월 개강을 하고 이제 2개월이 흘렀다.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많은 일이 있었다.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사고 없이 무사히 치렀고 ‘갈수록 발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앞으로 축전 등 많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총학과 대의원회, 그리고 학우들이 모두 어우러져 열정적으로 지냈으면 한다. 가끔 칭찬도 부탁한다. 작은 칭찬에도 총학과 대의원회 모두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다.

총학생회와 대의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학우들이 잘 모른다.

쉽게 이야기하면 학우들이 학생으로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거나 운영한다. 대의원회는 총학생회와 더불어 학우들을 모으고, 예산 등이 잘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며 함께 일을 한다.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축제, 체육대회 등 행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건의하고 싶은 것들을 총학생회와 대의원회가 대신 전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요즘에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우선 당장 축전과 총동문회가 주최하는 Y리그가 있다. 올해는 축제와 체육대회를 같이 진행하기에 막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험도 끝나고, 날도 좋아서 학생들이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맘껏 풀 수 있도록 이벤트 부스, 주점 운영, 동아리 공연, 미니 게임 등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즐거운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그간 축제와 체육대회 참석률이 점점 줄고 재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올해는 푸드 트럭 운영, 미니 게임 확대 등 경기나 주점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 중이다. 이번 축전을 통해 그간 축제와 체전의 기본 의미인 협동심, 애교심, 사교성 등이 길러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총학생회 공약이 잘 이행되지 않고 대의원회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올해 총학생회와 대의원회 활동 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총학생회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축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의원회에서도 총학생회와 더불어 이 부분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회의를 함께 진행한다. 총학생회와 대의원회 일을 하다 보니 예산적인 부분 등에서 공약 중에 이행이 쉽지 않은 일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통학버스나 흡연구역 문제 등은 매년 공약으로 나오고, 많은 학생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총학생회와 대의원회가 일주일에 1회 이상 회의를 한다. 해당 부분은 매 회의나 건의시간에 언급되는 사안이다. 현재 학생지원처와 통학버스 회사에 학우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목표는?

정)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된다. 당장은 눈앞에 주어진 행사를 성실히 잘 수행하고 싶다. 큰 사고도 없고, 많은 학우들이 ‘즐겁다’라고 말하는 행사를 기획하



고, 진행하고 싶다. 그리고 축전 뿐 아니라 연말까지 총학생회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하는 모든 일이 그러길 바란다. 김) 대의원회 의장을 하면서 ‘학우 모두가 내 친구다’라는 마음을 가졌다. 내 친구들의 불편함, 속상함을 잘 들어주고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싶다는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 학과의 대표인만큼 모범된 모습을 보여 봉사하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친구, 후배, 선배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 매년 학생회비와 동문회비가 줄고 있다. 그러다보니 행사나 시설물 교체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주변 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 물론 학생 입장에서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축제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회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몇몇 학생들은 학생회비를 개인적으로 융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절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학생회비가 결코 아까운 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학생회를 믿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격려도 부탁한다. 학우들이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 학과 학회장으로 이루어진 대의원회의 대표가 되었다.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있어 언제나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겠다. 리더십은 잘 따라오는 팔로워십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일이 아니라 ‘나’도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언제나 노력하는 의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고 없이 이행되어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자리하길 바란다.

이재은, 황주현 기자

교내단신

NCS 학습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우리 대학 NCS교육지원센터에서 ‘2017학년도 1학기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모집하여, 총 22개 학과 75명의 학우들이 신청을 마친 가운데 지난달 10일 학습포트폴리오 설명회를 가졌다. 경진대회는 자기소개, 학습활동, 성찰활동으로 구성되어 전공과목 수행과 함께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학생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진단사이트를 통해 각자 전공과목 이수 및 활동에 대한 이력관리를 입력하고 이를 심사받게 된다. 센터 측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선정하여 상장과 취업인증제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라 전했다.

제3기 감사 나눔 125 시작

‘제3기 감사 나눔 125’가 지난 27일부터 시작되었다.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보건의료행정과, 안경광학과, 작업치료과 5개 학과 1학년 재학생 60명이 책 읽기부터 지역 봉사까지 참여한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올해로 세 번째로 진행되

는 만큼 프로그램이 풍부해지고 있다”며 “매 학기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전교적으로 확산 시킬 예정”이라 전했다. ‘감사 나눔 125’는 한 달에 책 1권을 읽고 토론하고, 일주일에 2번 주위 사람들을 돕고, 하루에 5가지 칭찬을 하고 감사일기 쓰기를 실천하는 운동으로 많은 사회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종생활관생 의사소통 프로그램 특강

지난 3월 27일, 30일에 평생교육원 6강의실에서 세종생활관생 77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우리는 동거녀·동거남으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문화 및 생활습관의 차이로 겪게 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관생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숙사생들끼리의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리더십연구소 세종대왕릉 재실서 ‘문회(門會)’ 개최

우리 대학 세종리더십연구소가 5월 13일 세종대왕탄신 620주년을 맞아 영릉 재실에서 ‘제1회 실록학교문화’를 개최

했다. 그간 연구소는 실록학교를 통해 조선왕조실록과 치평요람, 홍재전서 등의 한국 리더십교전 속 원전을 감독하면서 리더십 케이스를 심층 분석해 왔다. 그간 실록학교에서 배출된 수료생은 CEO등 고위기업인을 비롯해 공직자와 각 분야별 전문가 등 2500여 명에 이른다. 이번 문화는 첫 번째 총동문화 개념으로, 세종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남의 연회, 맛있는 연회, 감동의 연회 등 3가지의 연회로 진행되었다. 특히, 세종의 음악을 주제로 ‘찾아가는 국악방송’ 무대도 선보여 의미를 더했다.

베트남 유학생 친선축구경기

우리 대학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 및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친선 축구경기가 지난 27일 인조잔디구장에서 진행됐다. 베트남 유학생 축구동아리 20명과 응원단, 총학생회, 교직원 축구동호회가 참석했다. 특히, 교직원 축구단은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해 20여벌의 축구 유니폼을 마련, 기증하는 행사도 열었다. 유학생과 교직원의 경기는 5대 0으로 유학생이 대승하며 마무리 되었다. 경기를 마친 후에는 운동장 정리와 저녁식사를 하며 친분을 다졌다.

NCS 가이드북 제작

NCS교육지원센터는 지난달 ‘NCS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가이드북은 NCS 개념 이해, 활용범위를 만화로 재미있게 소개하고, 우리 대학 계열 학과별 인재 양성 유형을 구분하는 직무에 대해 상세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다. 센터 관계자는 “NCS 개념이 어려운 학우와 취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했다”며 “NCS기반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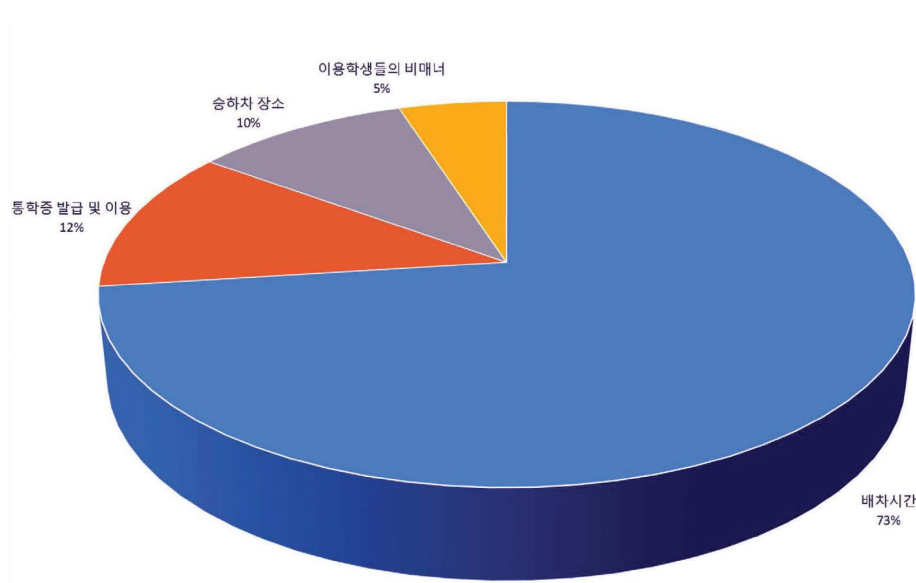
교내 정화활동 캠페인 실시

학생지원처는 1학기 동안 흡연지도와 안전속도 준수 캠페인을 통해 교내 정화활동을 진행한다. 최근 우리 대학은 금연구역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흡연구역 표기를 확실히 하고, 30Km 안전속도 표지판이 있음에도 담배꽂초 등 쓰레기가 굴러 다니거나 차량 속도가 빨라 사고가 날 뻔한 등 학우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지원처는 총학생회와 더불어 매일 아침 담배꽂초와 쓰레기를 줍고, 흡연구역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학생회는 “추후 흡연구역 확대 및 확실한 표지판 설치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응답하라, 통학버스

우리 대학 학생 수는 약 5,200여명이다. 이 중 기숙사 생활인이 900여명, 인근 원룸 등에서 자취하는 학생이 500여명이다. 그럼 나머지는 통학버스나 자가용을 통해 통학하는 학생들이다. 학교 홈페이지 학생게시판에 대부분 민원은 통학버스에 관련된 사안이고, 이에 따라 매년 총학생회 공약에는 통학버스 개선에 대한 안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은 여전히 통학버스에 대한 불만과 불편을 호소한다.

이에 학보사는 봄별이 다스한 4월의 아침 통학버스 이용 학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교시 수업으로 발걸음을 분주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많은 학우들이 응답했다. 각각 불만사항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목소리는 ‘배차시간·횡수 개선’이었다. 통학버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있는가.



〈통학버스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배차시간 #통학증 발급 및 이용방법
#승하차 장소
#너무 불편해요! #개선해주세요!

여주인을 힘들게 하는 통학버스 이용 부분은 배차 시간(73%)과 통학증 발급 및 이용방법(12%), 승하차 장소(10%), 이용학생들의 비매너(5%)로 나왔다.

여주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버스 비용에 비해 배차가 적다’, ‘특히 인천 근교 지역은 하루에 승하차가 각각 1회 밖에 없어 공강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에 등교하거나 동아리 활동 등은 꿈도 꾸지 못하고 하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강 등으로 인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도 패스를 한 번에 발급해야 하기에 그냥 버리는 금액이 많다고도 말했다. 이에 환불제 카드 발급이나 요금 이월제 등이 이뤄지길 원했다. 그 외의 의견으로는 신속한 통학증 발급 공지, 깨끗한 통학버스, 고성, 음주 추태, 성희롱 등 이용 학생들의 비매너와 범죄 등이 언급되었다.

■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

우리 대학 1교시는 9시 30분에 시작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통학버스가 1교시에 맞춰 각 지역에서 출발한다. 승·하차장은 여주, 이천, 성남, 수원, 용인,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다. 통학의 주요 이유로 자취를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원거리 및 유학생들에게 밀려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 2/3의 학생들이 통학을 이용한다. 통학을 하는 여주인은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통학버스에 대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다양하지 못한 배차시간, 통학증 발급 및 이용의 불편함, 승하차 장소,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상당히 많았다. 학우들은 여건상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비용에 비해 이용 등에서 불편함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통학버스 기사 또는 관리자에게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반말을 듣는 등 상당히 불친절한 응대를 받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도 전했다. 요구를 단순한 불만으로만 받아들이거나 오래 기다리는 것, 일부 구간 승하차를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등 기본적인 배려가 무시된 경우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일부 구간은 배차시간이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학교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등 학업을 수행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전했다.

학생지원처 관계자와 총학생회를 만났다. 배차시간, 승하차 장소, 통학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하루 대부분 통학버스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경기고속이 경강선 개통으로 수익성 감소로 1004번을 폐쇄하면서 학우들의 불만이 더 늘어났다고 전했다. 학생지원처에 의하면 1004번 노선 폐쇄 문제는 해당 지역의 통학버스를 신설하여 해결하였다고 말했다. 승하차 장소의 경우 구역 개선을 위해 탑승인원이 40명이 넘어야 하며 대형버스가 승차하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장소로 배차가 결정된다. 통학버스 요금은 한 달 20일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버스요금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책정한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1회~10회 회수권은 법규상 불법에 해당된다. 우리 대학은 법률상 전세버스를 횡수가 아닌 월 또는 년으로 계약하며, 전세버스에서 회수권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 언급했다.

학생지원처와 총학생회는 “통학버스 기사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다만 배차 횡수의 경우 늘리다 보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며, 시간이나 장소, 통학증 발급 및 이용 개선 등은 학교, 통학버스 회사, 법률적인 문제들이 얹어 있어 바로 변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매년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는 만큼 불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통학버스 개선에 대한 제안, 통학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추태 문제 등이 있으면 대학본부 3층 학생지원처(031-880-5536, 5537, 5539)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은, 이재은, 어진선, 한미나 기자



벚꽃이 피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왔다. 동면에서 깨어나 하나둘 피어오르는 그 자태들을 바라보자면 아름다움에 넋을 잃게 된다. 그러한 봄이 온 우리 대학 캠퍼스의 풍경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모아두었다. 이번 벚꽃 행사의 주요 행사인 사진 콘테스트부터 학생지원처에서 주최한 달고나, 떡 나눔 행사들이 캠퍼스의 봄을 더욱 화사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 주었다.(사진: 학생지원처 제공)



i 우리 학교 벚꽃이 좋다



i 벚과 함께한 꽃길, 황민호(장려)



i 교수님과 함께



i 떡 사세요



i 꽃조



i 우리는 국방, 김지인(우수)



i 봄이 왔조, 박연아(장려)



i 봄날의 기억, 남유미(우수)



i 벚꽃과 특전, 허준(장려)



i 자고 일어나니 봄, 장지범(장려)



i 벚꽃과 함께 힘차게, 장동엽(최우수)



i 여주대학교 벚꽃이 좋다, 강유리(우수)

SUNA's delhi 미니인터뷰

벚꽃 축제가 펼쳐지는 한편에 주린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푸드 트럭이 있었다. 알고 보니 졸업생이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통해 만든 곳! 벚꽃 축제가 끝난 지금은 1공학관과 창의관 사이에 있는 그들을 만났다.

• 푸드 트럭 운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직장을 퇴직하고나서 교수님한테 추천을 받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 원래는 작년 11월부터 오픈할 예정이었다. 현대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았고, 메뉴도 처음에는 파니니 형식의 샌드위치였지만 닭 꼬치와 오꼬노미 컵밥으로 변경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지금은 오히려 이 메뉴 선정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운영과정과 현재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는가?

예전부터 나만의 가게를 가지는 게 꿈이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서류 준비 및 식자재 마련 등 이것저것 생각보다 힘이 들기도 했지만 학교 학생들과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다. 언제나 찾아주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맛 좋은 음식을 선보이고 싶어서 메뉴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 많이 방문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5월, 모든 선택이 좋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2개월 만에 새로운 리더를 뽑기 위한 자리인 만큼 많은 이들이 발길을 더했다. 재외투표율은 75.3%, 사전투표율은 26.06%, 전체 투표율은 77.2%를 기록했다. 짧은 유세기간 후보들은 각자 서로가 적페라 주장하며 바른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언급했다.

겨울부터 뜨겁던 대한민국은 이제 또 다른 5년을 보내게 되었다. 머나먼 곳에 위치하던 '정치'는 이제 우리의 곁에 서있다.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각자 원하는 정치에 대한 열망이 끊임없는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선거를 처음 맞은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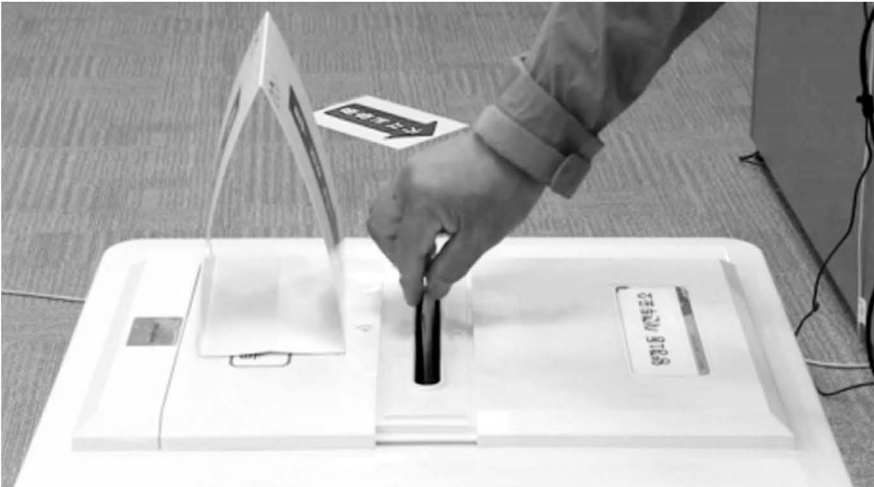
■ 나의 첫 번째 선택을 위하여

학생 1 | 투표율도 높고, 후보 간 표차도 엄청났다. 아직 세대별 투표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 뿐 아니라 친구들이 이번엔 꼭 투표하겠다는 열의가 대단했던 만큼 20~30대의 투표율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5년간 우리나라의 리더를 뽑는 게 아니라 그간 우리가 외면한 사회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진행된 만큼 '장미대선'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사회와 정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학생 2 |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동안 성장에만 집중하던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선거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유세가 시작되면서 여전한 이념 논쟁, 서로가 적페라 주장하며 퍼붓는 발언들을 보면 '혹시'가 역사가 되기도 했다. 스탠딩 등 후보들의 토론이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었는데, 그냥 형식만 달라졌을 뿐 그들이 말하고, 중시하는 이야기들은 주로 안보, 이념 논쟁에만 국한되어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학생 3 | 대통령 후보가 15명이었다. 물론 중간에 포기를 한 후보들도 있지만 모두가 '원주'하여 다양성이 돋보이는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되었다. 다만 토론 중 나온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의와 시각이 여전히 편협하고 부족한 것 같았다. 여러 정당에서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지역색이 많이 떨어진 만큼 여러 시각이 '다름'으로 수용되는 계기가 되었



으면 좋겠다.

YTN

학생 4 | 선거 막바지 여론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답답했다. 물론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지만 61일로 기간이 짧았던 선거였던 만큼 유권자가 각 후보의 면면을 세세히 알아볼 수 있는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

학생 5 | 예전에는 관심 없던 정치가 재밌어지는 선거였다. 표심을 잡기 위해

각 후보들이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을 유세하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정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몸소 느껴졌다.

다만 그런 흥미와 재미만 부각되어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그것이 실제로 잘 이행될 수 있는 부분인지 등을 검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가짜뉴스'가 판치다 보니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매우 어려웠다.



국회사진기자단

■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단한 인기를 보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했지만 숨겨왔던 문제들을 잘 해결하길 원하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이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제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언제나 감시자가 되어 대통령과 다음 정권의 행보를 지지하기도, 비판하기도 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크게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했다.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관 현업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지원 확대,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

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눈여겨봐야 할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고용활당제를 확대하고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청년·알바 체당금제 실시를 통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쉼어 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을 5만실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겠다고 한다.

그 외 안보에 있어서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위 공약들 중 모두가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일자리 창출에 관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이 향후 연금 부족으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 비난의 여론도 많다. 안보 등에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 해결 등 출범부터 엄청난 시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김남혁, 김진홍, 이재은, 황주현 기자



13회 입사전형 콘테스트 <100초의 품격>

5월 8일(월) ~ 5월 19일(금) 접수
5월 31일(수) 14시, 마로니에홀 본선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참가신청서(필수), 이력서, 자기소개서(자율)

문의 | 취창업지원처 031)880-5558

칼럼

4차 산업혁명의 교육혁신을 위한 태도

최근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렇게 산업혁명을 구분한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을 그 기점으로 잡고 회자된 산업혁명은 현재 4단계로 구분한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증기기관의 개발로 인간이 에너지에 대한 지배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지며, 20세기 초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전기 동력과 분업화 표준화를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끈 정보통신의 물결과 이를 통한 생산시스템의 자동화였다. 최근 언급되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의 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화된 제품을 생산해 내는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 세대에 바람직한 교육은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해서 적어도 100년 정도는 큰 변화 없이 무탈하게 좋은 계획만 있으면 진보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맹모삼천(孟母三遷)”의 진정한 의미(?)인 좋은 사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는 백년대계, 맹모삼천이라는 계획은 물러가고 좋은 꿈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

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대한 것

이다. 아니, 실현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다. 가능성이 희박하여 누구든지 비웃을 그러한 비전이다. 지금이 4차 산업단계에 접어든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어떤 조건과 도구들이 이 혁명을 완수하기에 적합한 것이 될 런지는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조건인 인간은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어떤 인간이 요구되는가? 그런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 아닐까?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우리의 교육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대학은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같은 사물과 현상이라도 색다른 생각으로 연결시키면서 예측불허인 미래에 대비하는 인재를 양육해야 한다. 색다른 생각을 하려면 색다르게 살아야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물론 교수자인 우리가 먼저 남다르게 살아야 가능한 일이다.

둘째, 교육의 제공자로서 대학과 당국자는 다양한 역량과 기술을 산업계에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에 최대한 자율권을 주어, 자기 대학만의 특징을 지닌 졸업생을 배출해야 한다. 당국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대학이 수용하는 구조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거세게 분출될 것이다.

셋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요

청되는 능력과 기술, 이에 대응하는 인력 이 둘 사이의 mismatching에 대한 솔루션으로 탄생한 것이 현재의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다. 지난 몇 년 동안 mismatching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이다. 학습스킬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같은 스마트학습법이다.

넷째, 아이디어를 시험해보는 제작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길러진 능력 있는 인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종의 랩 시설이 필요하다. 실제 만들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다듬어진 순수 창작물이 한류를 넘어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나만의 장르를 만들어 낼 것이다.

어떤 제도라도 인간의 본성과 자발성을 거슬리고 성공하는 예를 보지 못했다. 학문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추측과 반증’의 메카니즘만으로는 위대한 진보와 발전을 기약할 수 없고, 암묵적 지식의 바탕위에 토마스 쿤(Thomas S. Kuhn)이 말한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정상과학 하에서 큰 발전이 있어온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더 이상 백년대계, 맹모삼천이 아니다. 지금이고, 우리가 아닌 나 자신이며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자신만의 꿈을 꾸게 하는 것이다.

박영민

치위생과 교수

사설

스마트폰 시대에 책을 권하다

지난 4월 5일 차기정부 출판사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대 장대의 교수의 ‘독서력과 시민의 품격’이라는 발표는 스마트폰에 찌들어 사는 작금의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독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장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독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이지만 그로 인해 유전적인 차이가 0.4%밖에 지나지 않는 침팬지와 달리 인간사회를 문명으로 이끈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독서는 ‘사회적 학습 능력’을 가능하게 하며 인간은 ‘기록’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달하면서 문명이 탄생하고 축적되고 번영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인간이 책을 읽어야하는 ‘인간 뇌의 학습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최근에 사람들은 책 대신 다양한 디지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는데 이것은 인간 뇌의 시각 피질을 이용한 ‘빠른 정보 습득(fast learning)’으로 규정된다. 빠른 정보 습득은 최고의 학습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문제는 주어진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창의적인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해결은 ‘느린 생각(slow thinking)’을 통해 형성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이것은 인간 뇌의 전전두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책을 읽을 때 이루어진다. 즉 ‘창의적 인재’들은 독서를 통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육성되는 것이다. 나아가 독서는 뇌의 공감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공감은 인간이 사회를 만드는 필수 덕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독서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뿐 아니라 ‘인간 사회’를 형성하는 최선의 방책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장교수의 연구는 ‘독서력의 수준이 시민의 품격’이라는 명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장 교수의 관점에서 볼 때 작금의 대학 캠퍼스 현실은 개선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 ‘빠른 정보 습득’은 갈수록 확대되어가는 반면 ‘느린 생각’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이것은 다수의 대학 캠퍼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그 당연한 원인은 스마트폰이다.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필수 물품이 되어온 스마트폰은 해를 거듭할수록 위력을 떨치며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이미 대학생이 되면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는 없다.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창이며 정보를 획득하는 선생님이며 삶에 즐거움을 불어넣는 활력소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매일 절대 시간을 스마트폰에 매달리다시피 집착하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심한 경우 공황증세까지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을 잡은 시간에 반비례해서 책을 잡는 시간은 적어진다는 점이다. 책을 앞에 두고 강의가 진행되는 시간동안에도 상당수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몰두한다.

개인의 영역에 대한 가치가 커지고 멀리 있는 친구들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즐긴다고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거의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매달리는 모습은 결코 환영할 수 없다. SNS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대부분 단편적이고 빠르게 습득한 정보들을 퍼 나르거나 간단한 멘트를 붙여 자신의 이야기인양 나누는 것은 창의적이지도 않고 사회적이지도 않다. 하나의 현상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사고의 폭을 넓혀나가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가는 훈련을 쌓아야 하는 곳이 대학이라면 스마트폰에 매몰된 대학인들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 이상으로 사회의 건전한 시민이자 미래의 창의적인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목표라면 책을 멀리하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문화는 필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기자수첩

‘더불어’ 살아가길



신영복 홈페이지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회 제일 큰 불평등이라 언급되는 성 불평등에 대해 지난 선거 기간 많은 대선후보들이 개선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불평등 해결의 목소리에 반해 약자에 대한 혐오 문화도 짙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가장 중심의 대가족 제도로 지내왔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가족 기능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 더 부여하는 한편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를 견고히 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가족 내 권력이 공동체, 지역 등 더 큰 체계와 교류하면서 남성중심의 문화가 구조적으로 공고해졌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당연히 되었다. 그리고 1920년 여성참정권 운동을 시작으로 남성중심 권력과 문화 불균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인권과 관련해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성 불평등의 해결이 단지 여성의 권위 신장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주창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불평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거창하게 교육기회, 정보, 경제, 장애인 등의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우리 개개인의 기억을 환기하면 불평등을 경험한 일이 한바탕 있을 것이다. 빈도와 강도의 차이일 뿐.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왔다. 경제 불균형, 성 불평등, 사회적 약자 배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의 문화를 완전히 때려 부수고, 권력이 중심되어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뺏은 것이 아니다. 약자가 최소한 생계를 누리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 우리가 차별을 간과 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어 자리매김 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어야 한다.

김남혁 기자

어디까지 가봤니?

느린 걸음, 넓은 시야 - '뮤지엄 산'



뮤지엄 산 홈페이지

미술관 나들이는 언제나 두렵다. 감상이 주는 어려움 때문이다. 감상은 지식이 가득 찬 상태에서 행해지는 예술 행위로 느껴진다. 이런 어려움을 무너뜨리는 곳이 있다. 여주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 원주 오코밸리 내 뮤지엄 산이 그 곳이다. 뮤지엄 산은 건축의 대가라 불리는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으며 이 중섭, 김환기 등 우리나라 미술 대가들의 작품이 상시 전시된다.

그러나 이곳을 아름답게 만든 것은 대가의 건축물도, 미술작품도 아닌 원주의 사계절이다. 곳곳에 배치된 수많은 회화, 조각들이 미술관을 둘러싼 산, 하늘과 어우러져 다급한 우리의 발걸음을 늦춘다. 안도 다다오는 뮤지엄 산을 설계하며 '어른과 아이 모두 여기서 하루를 보내며 자연과 예술에 대한 감성이 풍부해져,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갈 힘'을 되찾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특히, 미술관 제일 마지막 스톤가든 깊숙이 자리 잡은 라이팅 아트 거장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관은 빛과 어둠을 직접 경험해 휴식, 치유와 자유의 정신을 느끼게 해준다.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주는 어우러짐을 통해 삶과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길 원한다면 원주 뮤지엄 산으로 가보자.

이재은 기자

문화산책

이번 주말 야구 직관가자!

명실상부 우리나라 인기 스포츠는 야구이다. 800만 관중을 동원하며 관련 상품이 연일 매진되는 등 그 열기는 매년 뜨거워진다. 동장군을 몰아내고 봄빛과 여름향기가 가득한 지금 미세먼지 따위는 두렵지 않은 열기를 보여줄 때다. 지난 3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개 구단이 140여 경기를 가을야구라 불리는 플레이오프까지 8개월 가량 선보인다. 현재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야구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야구 규칙이 어려워, 경기가 너무 길어서 지겨워하거나, 재미를 못 느끼는 이들도 많다. 이런 야구에 친근감을 느끼기 위한 방법이 있다.

우선 집과 비교적 가깝거나 마음에 드는 선수, 응원가, 치어단 등이 있는 팀을 정하는 것이다. 서울 출신이라면 대다수 두산과 LG를 응원하고, 응원 열기 등으로 인해 롯데나



기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다음에는 직관(직접 관람의 줄임말)을 가는 것이다. 유명인의 시구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원하는 팀을 응원하다 보면 그간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온갖 흥이 절로 난다. 가까운 서울, 수원 등지에 야구장이 있어 야구도 즐기고 근처 공원이나 유적지 탐방도 겸하면 색다른 일상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삶이 지루해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다면 그대여~야구장으로 가자!

이재은 기자

책을 보다

모든 삶이 그러하듯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작가는 그동안 여전히 여러 번 짐을 썼고, 여러 번 떠났으며, 어김없이 돌아왔다. 변하지 않은 건 '사람'. 혼자 떠난 여행에서도 늘 '사람' 속에 있었으며, '사람'에 대한 따뜻한 호기심과 '사람'을 기다리는 쓸쓸하거나 저릿한 마음을 거두지 않는다. 사람이 여행하는 곳이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은 그래서 맞다."

이병률 시인의 7년만의 책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는 여행 산문집이다. 하루에도 여러 번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목차도 페이지도 없다. 그러니, 순서도 없다. 책의 어느 곳이나 펼치고, 전 세계 어딘가 쫓아서 작가의 카메라의 셔터가 잠시 쉬었다 간 곳, 그리고 펜이 머물다 간 곳을 따라 함께 느끼면 된다. 그곳이 바로 시작점이기도 하고, 종착점이기도 하다. 우리의 여행이 그러하듯이.' 라는 책 소개가 너무나 잘 들어맞는 책이기도 하다.

시인은 첫 장 제목을 '심장을 시켰다'로 시작한다. 우리 삶의 대부분 중요한 결정이 심장이 시켜서,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시인은 자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넓은 게 아니며 자신이



달 출판사

다만 세상의 조각이었음을 깨닫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도 말한다. 때문에 그의 여행의 화려하지도, 계획적이지도 않다. 그저 낯선 곳에서 살아지는 일상과 그 과정에서 만난 이들에 대해 담백하게 이야기 할 뿐이다.

그래서 이 책은 어느 나라, 어느 길, 어느 만남에서 생각나는 대로, 심장이 느끼는 대로 적어낸 소소한 대화이다.

살아내는 일상의 탁한 숨을 거뒀내고 싶을 때, 그저 당연한 일상인 바람이 부는 어느 때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 책과 대화해 보도.

김진홍 기자

독자 퀴즈

1. e-MU 선정 개설 학과 명칭은?
2. 직무역량 강화캠프 참가자 수는?
3. 교내 정화활동 캠페인 2가지는?
4. 뮤지엄 산을 설계한 건축가 이름은?

★ 독자퀴즈를 푸신 후 2007704@yit.ac.kr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129호 독자퀴즈 당첨자

축하합니다!

- 이태우(컴퓨터정보과)
- 허우정(작업치료과)



마음공작소 - 상설 Art Therapy

걱정인형 만들기
컬러링 - 만다라
심리영화 관람

대상 | 여주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기간 | 2017년 5월 8일 ~ 6월 21일

시간 | 10시 ~ 18시

장소 | 학생상담지원센터(031-880-5567)

학생상담지원센터는 심리상담, 진로상담, 자기돌봄(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